

지역 경제계 훈훈한 '설 나눔경영'

기아차 등 현대차그룹, 협력업체에 납품대금 1조1800억 앞당겨 지급

포스코 광양제철소·GS칼텍스 여수공장·롯데백화점 복지시설 선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지역 경제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협력업체의 사기 진작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고,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기아차 등 현대차그룹은 협력사들의 자금수요 해소를 위해 2000여 협력업체에 납품대금 1조1800억원을 앞당겨 지급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협력업체 250여개 사로 큰 도움을 받게 됐다.

기아차는 1차 협력사들이 2·3차 영

세 협력사들에 납품 대금을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해 매년 실시하는 협력사 평가에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중소 거래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을 조기 집행하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일반 자재 및 원료 공급사에 매주 화·금요일 두차례 지급하던 자금을 16일부터 20일까지 매일 지급하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던 공사 참여기업에도 대

금을 조기 정산할 예정이다. 또 월 단위로 정산하는 외주파트너사의 협력작업비를 설 연휴전인 18일에 일괄 지급해 거래기업들의 유동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정·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설 명절을 쓸쓸히 보내지 않도록 말벗이 돼주고, 쌀·생필품 등 설 선물을 전달하는 곳도 많다. 광양제철소는 18일 광양시 종마동 농협 4층 회의실에서 광양·순천·남해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쌀 1080포(5000만 원 상당)를 전달할 계획이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은 여수 묘도와 금오도 등 공장 인근 마을 및 섬마을 1800여 세대에 정성이 담긴 설 명절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GS칼텍스 협력사협의회는 18일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 격려할 예정이다.

선물 안받기 운동을 펴고 있는 금호고속과 금호터미널은 어쩔 수 없이 받은 선물을 모아 광주시 서구 쌍촌종합복지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롯데마루렛 광주수완점은 최근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무의탁 노인 요양시설인 '성심의 집'에서 사랑의 작은 은혜회를 열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광주 영아일시보호소를 찾아 아기 돌보기·청소·빨래 등 나눔 봉사활동을 실천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정옥기자 jwpark@kwangju.co.kr



농협전남본부 "윤리경영 실천"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는 16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일선 영업점 지부장과 지점장, 지역본부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조기 사업추진 및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전남농협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준수로 깨끗하고 청렴한 농협인상 정립을 위해 '윤리경영 실천 결의문'도 채택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증시 '한탕주의' 판친다

개미들 단타매매 극성...도박·로또 뺨치는 위험한 거래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의 한탕주의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개인들의 최근 투자행태가 흡사 도박판의 투기 방식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테마주라는 수십 개의 종목이 단발성 뉴스에 요동을 치고 투기성이 강한 파생상품 등 고위험거래에 뛰어드는 개미들도 크게 늘고 있다.

◇ 고위험거래 '개미무덤' = 고

위험 거래로 분류되는 파생상품의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4분기에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개인의 거래대금 비중은 37.22%에 달했다. 선물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 90조원 중 개인이 30조원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전년도 4분기 개인 거래 비중은 27.22%였

다. '개미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얻은 FX마진 거래 증가 속도 역시 가파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FX마진 거래 월평균 거래대금은 2010년 1분기 292억달러에서 지난해 1분기에는 505억달러로 급증했다. 3분기에는 628억달러로 불어나 협회가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분기별 최대치를 기록했다.

FX마진거래는 2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노리는 파생 선물거래다. 현재 이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99%가 개인투자자들이다. 이중 90% 정도가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정될 만큼 위험한 시장이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개인의 단타매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 시장의 지난해 4분기 회전율은 184.

15로 전년 같은 기간의 118.45보다 크게 높아졌다.

◇ 투기거래와 도박시장은 짙은
꼴= 개인의 고위험거래 급증 현상은 카지노와 경마, 복권 등 최근 사행산업이 급팽창하는 것과 일맥 통동한다.

세계 경기침체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도박판이나 투기 시장에 불나방처럼 뛰어들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개미들의 고위험거래가 늘어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자본시장에서 적은 돈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레버리지가 큰 파생상품이다. 정치 테마주 등 장중 주가 등락폭이 큰 코스닥 종목도 대박을 쳓는 이들의 주요 투자 대상이다.

〈연합뉴스〉



기아차노조 지회장 취임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는 16일 기아차 광주공장 연구소 대강당에서 제22대 박병규 지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박 지회장은 취임식에서 "지역사회와 눈높이를 맞춰 함께 호흡하고 부대끼면서 지역공동체로 나아가는 전형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기아차 노조 제공〉

광주고용청, 근로자의 날 포상 대상자 추천

왔다.

추천 대상은 국내 근로자, 근로청소년(만 20세 미만), 노조간부(단위 노조), 노사관계 발전 유공자 등다.

특히 올해는 국민주권체를 도입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박정옥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지식재산센터 2012년 사업 설명회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회장 고정주)와 광주지식재산센터는 17일 오후 2시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2012년도 광주지식재산센터 사업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특허정보 종합 컨설팅과 지역 브랜드·디자인 가치 제고, 지역 지식재산창출 기반 구축 등 광주지식재산센터 지원 사업과 중

소기업 IP(지식재산) 활용 전략, 특허기술 평가, 유망기술의 초기 상용화, 특허기술거래 통합 컨설팅 등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 사업화 및 거래 지원 사업 등이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홈페이지(www.ripic.org)를 통해서만 접수를 받는다. 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다. 문의 062-954-3841.
/박정옥기자 jw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859.27 (-16.41)
▼ 코스닥지수	519.85 (-3.28)
▼ 금리(국고채 3년)	3.35% (-0.02)
▲ 원·달러 환율	1154.70원 (+6.4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젊음과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물세트

그린알로에 네추럴 바디용품



샴푸, 린스
탈모방지, 양모효과



바디클렌저, 바디로션, 샤워코롱, 워시(청결제)
네추럴 바디용품



바디클렌저, 바디로션, 샤워코롱
네추럴 바디용품



샤워코롱, 바디로션
네추럴 바디용품



치약 4개
구취제거, 충치예방, 잇몸질환예방, 치은염
치료제 등

그린 알로에
FOR YOUR HEALTH

고객상담실 080-234-6588